

2012.03

다양성안에서일치를  
추구하는다일공동체

www.dail.org

하  
다  
일  
공  
동  
체

심장병을 앓고있는 캄보디아 어린이

르은이를 살려주세요!



# 관심이나, 무관심이나?

다일공동체는 추운 한겨울처럼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채, 소외된 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봄 햇살 같은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듣고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사회 복지사각지대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한 이웃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아픈 곳을 치료 받을 수 있으며 참 교육을 통해 섬기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늘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함께 하는 것입니다.

3월의 첫 번째, 기업의 사랑실천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절대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3월2일 아, 밥!(아름다운밥퍼) 나눔이었습니다.

매일 밥이 퍼지는 청량리 밥퍼에서 뿐만 아니라

밥퍼나눔운동에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장소를 내놓고, 후원금과 수익금을 나누었습니다.

이날 모인 분들이 동참한 한 끼 나눔은 해외의 많은 아이들의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실천은

캄보디아에서 다급하게 들려온 수술이 시급한 심장병 어린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는 열한 살 소년 르은이는

외관상으로도 입술과 손톱 끝은 모두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런 아이를 살리고자 엄마는 바탐방이라는 꽤 먼 곳에서부터

작은 나무배를 타고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를 만난 우리 모두는 심장질환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결코 모른 척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절박한 사연을 알고도 무관심으로 돌릴 수는 없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자라고, 형제의 관계에서 훈련되며,  
이성간의 사랑에서 비약하며, 더 한 걸음 나아가 소외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서로사랑' 에서 진정한 사랑을 꽃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심이나? 무관심이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기에...'

지금, 여기! 당신의 깊은 관심을 기다립니다! 아하!!



심찬리그룹이 함께 한 아, 밥!  
이 땅에 밥굶는이 없을때까지...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 C O N T E N T S

- 02 Focus 희망으로 가는 길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기공식 및 캄보디아 비전 트립
- 06 Review 2012년 아,밥! “아시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밥과 사랑을 전합니다.”
- 08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0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 12 다일의 현장 미주다일공동체
- 14 다일의 현장 중국다일공동체
- 16 아름다운 변화 캄보디아 아이 르은이 살리기
- 17 포토에세이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cover story

캄보디아에서 심장질환으로 고통받는 르은이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르은이가 눈물대신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후원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 Focus

희망으로 가는길



#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기공식 및 캄보디아 비전 트립

## 캄보디아에 심은 희망의 씨앗에 부어진 첫 삽

겨울에도 따뜻한 나라 캄보디아에 다일공동체 비전트립팀 34명이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공항에 나오는 순간 뜨거운 공기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반겨주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스텝들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도착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 나와 준 고마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리고 감격의 인사를 마치자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다소 마른 몸의 스텝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흘리는 땀과 수고가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캄보디아 땅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땀과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에 첫 희망의 씨앗을 심은지 꼭 10년 만에 새로운 꿈을 꿈꿉니다.

아시안을 위한 다일영성수련원과 다일서번트리더십훈련센터로 사용되어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세우는 일입니다.

캄보디아다일공동체를 향한 최일도 목사님의 기도와 축복이, 1대 이기원 원장의 눈물이, 2

대 김학용 원장의 소원이, 3대 김형길 원장의 희망이 모여져 드디어 2012년 2월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 감사예배가 드려지고 첫 삽이 떠졌습니다.

아직은 마른 땅일 뿐인 이 터에 아시아다일비전센터가 우뚝 세워져 아시아 뿐 아니라 유럽과 미대륙의 젊은이들이 구름 떴처럼 몰려와 다일의 영성을 배우고, 작은 예수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꿈꾸어봅니다.

## 캄보디아 땅의 희망씨앗을 찾아 떠난 여행!

### 땀과 눈물의 씨앗 하나, 영가(NGO)다일

킬링필드 캄보디아 땅이 희망의 땅이 되길 소망하는 맘으로 세워진 다일공동체, 씨엠립 폰레샵 수상빈민촌 마을주민들은 우리를 만날 때마다 '영가(N.G.O)다일' 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입니다.

마을 아이들이 밥만 먹고, 유치원교육을 통해서만 큰 계 아니라 다일가족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먹고 자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찡그린 표정의 얼굴이라

곤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오백명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도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보며 다일공동체가 마을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폰레샵 마을의 아이들은 '영가다일' 이 자신을 위해 있는 곳이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이 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미 몸으로 체득하고 받은 사랑을 나눌 줄도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도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 복음의 씨앗 돌, 스룩뿌억다일교회

조용한 시골길을 지나 더 깊고 깊은 마을까지 걸어 들어가니 스룩뿌억다일교회가 나옵니다. 지뢰피해자 마을에 세워진 작고 아름다운 스룩뿌억다일교회에는 매 주일마다 500명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다일공동체는 단순히



## Focus

### 희망으로 가는길

떡만 나누는 N.G.O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에 영과 육이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 옥합을 깨뜨린 씨앗 셋, 밀알헌금

비전트립팀 팀원이었던 김영재님은 아시아다일비전센터의 착공식에 참석하여 첫 삽을 뜨고 다일공동체의 꿈에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 자리에서 받은 감동과 결단을 잊지 않고 그동안 근검절약 아끼고 모은 1004만원을 비전센터건립을 위해 후원 하셨습니다.

매일 밥퍼에서 진지를 드시는 무의탁 노인들이 내미는 자존심 유지비 동전하나도 아주 소중하게 캄보디아와 아시아 빈민들을 위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전 천사운동으로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졌던 그 뜨거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얼굴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어떤 분들이 천사회원이 될지 모르지만, 세워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에서 훈련된 리더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가 될 희망의 땅에 사랑을 쌓는 분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는 것이 큰 감동입니다.

아시아와 지구촌을 섬기는 인재들을 길러낼 젊은이들을 위한 꿈의 비전센터!

청량리에서 무의탁 노인들과 노숙인들까지 자존심 유지비로 내는 동전 하나하나부터 1004만원까지 다시 또 시작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 세워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한 개미군단의 십시일반 정신에 여러 분들도 사랑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주시길 바랍니다.

글/ 편집부

문의) 2212-8004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 비전트립을 마치고

### 씨엠립밥퍼센터에서 만난 아이들



캄보디아밥퍼센터는 캄보디아 가난한 아이들에게 최고의 놀이터요, 학교요, 엄마품 같이 편안한 집과 같은 곳이다. 밥퍼를 찾아오는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스태프들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없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히 밥을 먹고, 워십댄스, 태권도, 탁구, 중창 등 각자의 관심사를 따라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다. 비전트립팀은 손을 건너 부치고 밥퍼 배식과 빵퍼 준비를 위해 일손을 도왔다. 밥을 먹기 위해 모인 아이들의 우렁찬 찬양 소리에 박수를 맞춰 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기에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할 것이 없으며 다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꿈을 펼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만 하면 될 일임에 깨닫게 되었다. 큰아이가 동생을 먹이고, 집에 있을 식구들을 위해 비닐봉지에 밥과 반찬을 담은 아이들을 보면서 캄보디아다일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의 주린배는 누가 채워줄 수 있었는지 다시 생각해보며 아시아 변방의 작은 NGO인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었다.

- 비전트립팀 강수연 주임 소감 중 -



## 2012, 아시아다일비전센터(캄보디아) 비전트립팀은?

2012.1.31.(화)-2.5(일) 4박 5일 동안 나눔과 섬김의 뜻과 의미를 되새기며, 캄보디아 땅을 밟고 중보하고, 더불어 아시아 이웃들을 위한 새로운 꿈인 아시아다일비전센터 착공감사예배를 드리기 위해 32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에 다녀왔습니다. 다일의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참가자 명단

최일도, 김연수, 김학용, 신수영, 강수연, 박순혜, 박명희, 이선희, 서승신, 황혜정, 홍정희, 김기원, 김수광, 홍명옥, 김애자, 김서연, 윤정규, 동광석, 김영재, 임정순, 정종려, 유길정, 오준혁, 김희성, 김희찬, 유동주, 양희창, 문의겸, 안미리, 리비다, 정구숙, 박순분, 김정자, 주계순

### 아시아다일비전센터는

아시아의 젊은이들이 다일영성수련을 경험하고 구제공헌의 현장 체험을 통해 서번트리더십을 배양할 수 있는 훈련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씨엠립에 세워질 비전센터를 통해 이루어 갈 새로운 꿈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아시아다일비전센터를 위한 후원의 손길

박상원님, 강효숙님, 홍명옥 & 김광수님, 홍정희님(예절선교회), 박명희님, 서승신님, 황혜정님, 양희창님, 김영재님, 무명 삼천리그룹, 소망교회, 소망교회 예림회



## Review

아, 밥! (아름다운 밥퍼)

# 아,밥!

## 2012년 아,밥!

### “아시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밥과 사랑을 전합니다.”

3월 2일 봄을 알리는 봄비가 땅을 촉촉이 적신 날,

Chai797에서 삼천리와 함께하는 아,밥!(아름다운밥퍼)나눔이 있었습니다.

천사운동 20주년을 맞아 ‘천사기업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에 참여한 삼천리그룹과 함께

따뜻한 한 끼 식사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웃들에게 또 다른 삶의 희망과 에너지를 나누었습니다!

#### ‘천사기업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에 동참한 삼천리그룹 감사합니다!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트려 시작된 천사운동이 20년,

2012년 이제 기업들도 천사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날 삼천리 그룹의 천사기업(1004만원) 후원금과 Chai797의 수익금은 아시아, 아프리카 아이들의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전달됩니다.



#### 오늘만큼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아,밥세트’로 통일!

아름다운 밥퍼 아,밥!은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보상이 없이, 대가없이, 정성껏 대접해 온 ‘밥퍼’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동참하는 식당을 부르는 말로, 이번엔 서래마을에 있는 중식당 Chai797에서 진행했습니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중국집에서 메뉴통일, 오늘 만큼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웃들을 위해 점심 진지 ‘아,밥!세트’로 통일해서 먹고, 나눔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 의 현상이었습니다.





### 빈곤퇴치운동 그게 뭐가요?

식당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 1번, 2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이날 행사장에서 있었던 빈곤퇴치운동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빈곤'은 단순히 '1달러 이하의 돈으로 사는 12억'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의 문제임을 알리고 UN에서 지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8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동참하고 싶은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 사진도 찰칵! 찍으며 빈곤, 기아, 교육, 양성평등, 질병퇴치 등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혜훈의원 협력대사 위촉

식전 행사로 이혜훈 의원이 참석하여 다일의 대외적인 사업 협력의 조력자이며,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수호천사가 되어주셨습니다.

- \* 아밥행사 참여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웃들을 위해 '아름다운밥퍼'에 동참할  
또 다른 식당과, 기업을 찾습니다.  
빈곤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소식들이 계속계속 전해지길 소망해봅니다!!



글/ 편집부

## 천사기업 소개





# 100원으로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

매일 매일 눈뜨면 시간 보내기 위해 일상으로 찾아오던 밥퍼였습니다.  
단지 동전 하나로 한 끼, 아니 어쩌면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밥퍼였습니다.  
때때로 힘든 마음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받아가며 잠시 쉬어가는 밥퍼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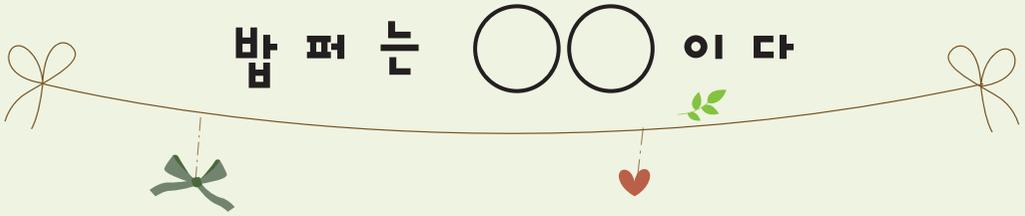
그런데 새봄의 희망처럼,  
소망 없던 밥상공동체 어르신들에게 새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가 내는 100원짜리 동전하나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어르신들이 내시는 동전하나하나가 모여 아시아의 절대빈곤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캄보디아에 세워질 아시아다일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 지게 된다.” 라는 소식이  
어르신들께 기쁜 소식이 되어 소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밥퍼가 어르신들겐 ‘나를 위한 밥퍼가 아닌 너를 위한 밥퍼’로 새로운 의미입니다.  
비록 동전하나지만, 그 의미는 ‘내 밥값’이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멋쩍어 하시며 내주시던 동전도 이젠 미소가득 머금은 당당한 손길로 내어주십니다.  
항상 도움을 받기만 해서 미안하다 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기쁘다하십니다.  
더 가난하고 절대빈곤에 있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삶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공감하시는 어르신들 스스로 ‘밥심’을 실천하는 후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밥퍼의 주고 받는 밥의 온도는 일도씩 온  
도를 더해갑니다.  
나눔이라는 것이 비움이 아닌 또 다른 채움임을  
몸소 보여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글/ 황선아 실장(밥퍼나눔운동본부)



**밥퍼는 마음을 나누는 장이다.** - 현대상선 김혜린  
추운겨울, 움츠러드는 날씨에 한끼 식사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비단, 봉사단체가 아니라 정과 마음을 나누는 곳인 것 같습니다.

**밥퍼는 따뜻한 온기다.** - 외교통상부 김수인  
찬바람 부는 겨울, 밥퍼에 와서 배식판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밥퍼는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모두에게 따뜻한 한 움큼 온기일 수 있다는 것.  
온기 한 움큼 가슴에 담고 따뜻해져 돌아갑니다.

**밥퍼는 감사(효도)다.** - (주)사람인HR 이정근  
어르신들을 보면서 부모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려운 시절에 지금을 만드신 주역이셨던 분들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뵙는 것 같아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밥퍼는 “회복”의 출발점이다.** - 가족봉사 이정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만 살아온 세월  
문득 나이 들어 이제야 어려운 이웃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동안 세상에 젖어서 살았던 나 자신을 회개하며...  
가족이 함께 봉사하며, 회개를 통한 우리 가족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밥퍼는 따뜻함이다.** - 봄온아카데미 조현진  
밥을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해주며  
식판에 따뜻한 음식을 담아, 따뜻한 마음으로 드리는 식사.  
오고 가는 식판 사이에서 서로 따뜻함을 느끼게 된다

**밥퍼는 릴레이다.** - 우리은행 이진아  
우리나라 온 국민이 릴레이로 한 번씩 해보면 이웃도 돌아보게 되고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것 같다.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도 상상해 보게 되구요.

**밥퍼는 나의 행복이다.** - SK텔링크 신화영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해보니 누구나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보람있는 것이었다.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그야말로 나를 위한 활동이었던 것 같다.  
행복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돌아간다.

# 이땅의 작은천국 이야기



봄 하늘이 참 쾌청하여 올려다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천국에는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어린아이, 노인, 죄인, 남, 여 할 것 없이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겠지...

이 땅에도 그런 곳이 있다면 다일 작은 천국이 아닐까 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땅의 작은 천국!

오늘은 마음을 담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풀어놓아 봅니다.

**작은 천국의 행동대장 한님**(가명)은 폭풍 잔소리를 하시지만 그 잔소리 속에 ‘직원들과 입소자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기에 그 잔소리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준님**(가명)은 작년 봄, 여름, 초겨울까지 작은 천국에 있는 텃밭을 어느 누구보다 정성들여 가꾸어 주셨습니다. 다시금 봄이 오니 준님을 통해 가꾸어질 텃밭 생각에 눈도 맘도 즐거워집니다.

간암에 피부 두드러기로 항상 굵적이는 것이 일이시고, 밤잠보다는 낮잠을 좋아하시는 **우님**(가명)은 “배간사 어디 갔어, 오늘 출근하는가?” “배간사 오라 그래.” 하시며 작은 천국의 신입 배태현 간사를 찾습니다. 항상 열심히 섬기는 배간사의 마음이 전달되었나 봅니다.

**항상 무뚝뚝한 표정으로 계시다가도 가끔은 환하게 웃어주시는 택님**(가명)

무뚝뚝한 표정과 말투 속에 말하지 못하는 세월들이 얼마나 담겨있을까 생각하게 되어 마음 문을 여실 때까지 구지 많은 질문들로 그 세월을 가늠하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알코올로 힘들어 하셨던 송님**(가명), 작은 천국에서의 몇 달간의 생활동안 환각, 환시, 환청으로부터 회복되었다니 참 다행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고통 속에서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시길 기도합니다.

신사적인 매력이 풍기시는 김님(가명)은 암으로 힘든 몸에도 부족한 저희들을 잘 따라주시고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효님(가명), 정님(가명), 현님(가명)은 참 밝고 씩씩하며, 둥글둥글한 성격으로 작은 천국의 미녀 3총사입니다. 삶의 고통만큼이나 질병의 고통으로도 힘든 삶을 살아온 그녀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와 씩씩한 마음이 있기에 덩달아 함께하는 우리들도 미소짓게 되며, 힘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계신 두님(가명)은 뇌경색 초반이라 작은 천국에서 이것저것 조심스러워 제한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곳에서 잘 적응하셔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참 많이 부족한 섬김이지만, 오히려 격려해주시고, 고맙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귀한 한날을 함께 울고, 웃고, 사랑하며 이 땅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다일작은 천국입니다!

정리 · 편집부 / 원고제공 · 배태현 간사

## 다일작은천국 사역소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노숙인 보호시설(쉼터) “다일작은천국”은 이 땅의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된 분들이 길거리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고 그 마지막 삶을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입소자,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이 곳에서 작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지가 있는 분은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합니다.

### 이 · 용 · 안 · 내

#### 대상자

- 1순위 호스피스 케어가 필요한 노숙인
- 2순위 중증질환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숙인  
일시적 요양 보호가 필요한 노숙인
- 3순위 노숙의 위기에 직면한 절박한 환자

#### 방법

본인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 직접 상담 후 결정하여 입소  
관계기관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서류 검토 후 입소

#### 서비스

기본적 의식주, 다일천사병원 검진 및 치료, 예배, 천국환송(장례) 자립자활 지원, 아름다운세상 살아가기, 다양한 프로그램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미주다일공동체를 소망하며

## 기도하는 미주 다일공동체

2012년, 미주 다일공동체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한해를 시작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과 함께 한 신년 시무식에서부터 손에 손을 붙잡고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중국다일공동체를 축복하며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카고 다일공동체는 2월 3일, 미주 14기 다일영성수련 장소였던 안디옥 기도원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다일공동체와 아시아 다일의 분원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시카고 다일공동체는 매달 첫주 토요일 오후에 시카고 다일공동체 사무실에서 사역의 최전방에 있는 아시아 다일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올 한해, 후원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간절한 기도를 아시아 다일공동체에 흘러 보내는 미주 다일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미주 다일영성수련 14기와 15기를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시다. “목사님,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아시아를 비롯한 최빈민 지역에 우물 100개를 파는 것이예요. 사실 저의 건강을 생각할 때 내 생애 안에 그 꿈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할 생각이예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지역에 노인분들을 위한 우물 하나를 파고 싶다고 그 비용을 알아봐 달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힘겨운 암 수술을 받으신 후 이제 갓 복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부터, 여기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 공심은데 밥한다 해피빈나눔캠페인



## 천사 교회를 찾습니다.

얼마 전 뉴욕에서 다일후원회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홍석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작년 5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사역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본 후에 깊은 감동을 받고 도울 길을 찾다가 올해부터 교회차원에서 캄보디아를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시겠다며 100불의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일년에 1,000불, 또는 매월 100불씩 후원해 주시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의 500명 어린이들의 2일 배식비가 되고, 톤레삽 수상 빈민촌 가정에 생활의 터전이 되는 나무배 2척을 지원할 수 있고, 캄보디아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파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아시아의 빈민촌을 품고 일년에 1,000불, 또는 매달 100불을 후원하는 천사 후원교회를 미주 땅에 계속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전창근 원장(미주다일공동체)



# NAVER 해피빈

## 다일천사병원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20년전 청량리 588주민들이 모아준 47만 5천원은 개신교 최초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원금이 계기로 1구좌 100만원 천사병원 설립을 위한 천사운동이 일어났고 이 천사운동을 통해 수 많은 천사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2002년 10월 4일 1004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제3세계 병든 이들이 다일천사병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은 정말 무료병원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말 값비싼 병원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사랑으로 가능했던 치료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참 많은 기적을 일궈온 다일천사병원. 다일천사병원의 천사가 되어주세요.

고통받는 누군가를 살리는 당신이 천사입니다!

**문의전화** 02-2213-8004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쑥쑥 자라는 중국다일공동체를 소망하며

안녕하세요, 중국 훈춘에서 아이들과 같이 인사 드립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맞아 멀리 유학을 갔던 아이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나서 그런지 아이들이 많이 커졌고 성숙해 졌습니다.

##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마웨이

매년 여름이면 최일도 큰아버지께서 다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작년 8월, 마웨이는 대학에 합격하여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웨이에게 종교를 어떻게 선택하겠느냐? 물으며 아버지,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웨이는 약간 당황해하며 거부감을 드러내었고,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방학이 되어 마웨이도 창사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생 청년티가 물씬 풍기는 마웨이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고 멀리서 온 마웨이를 위해, 이것 저것 요리 솜씨를 부리고...

즐겁고 유쾌한 저녁식사 후, 그 동안 못 나눈 대화를 나누던 중 놀랍게도 마웨이가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순간 내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날아갈 것처럼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아버지는 정말 재빠르게 어디선가 성경책을 찾아내어 마웨이에게 건내주고 어머니도 아주 재빠르게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자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일 눈 뜨자마자 마웨이의 어머니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작년 8월에 미국 뉴저지에서 마웨이를 만나고자 달려오신 스마일님, 피기님은 마웨이와 원삼이의 양부모님이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마웨이의 어머니 스마일님과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너무 감격한 스마일님이 우시면서 그 동안 마웨이에게 보냈던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어 두 아주머니는 수화기 붙들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를 고백하며 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스마일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솔직히 어린 아이들 챙기기 바쁘다는 이유로 다 큰

아이들에게는 살뜰히 대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스마일님이 멀리서 두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절절히 배어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내심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고, 아이들이 곁에 있을 때 더 사랑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마웨의 일로 통화를 하면서, 스마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웨가 성경책을 보겠다고 한 것은 시작이 반이죠. 이전 믿음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마웨의 변화는 순전히 스마일님과 스마일피기님의 사랑 때문 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만두처럼 속이 짝 찬 아이들이 되길

중국 최대 명절, 춘절(한국의 설)을 맞이하여 몇몇 아이들은 친척들을 방문하였고, 집에 남아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한국식 만두인 김치로 만두속을 만들어 먹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만두를 만드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만두를 많이 먹고 싶은 마음에 만두 속을 아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빨싸...우리 아이들은 아주 위대(胃大)했습니다. 만두를 삶아서 내놓는 순간, 만두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또 다시 만두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러나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만두 만들기는 밤 10시가 넘어도 끝날 줄을 모르고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만두를 빨리 만들고 끝내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두를 만들고 속이 남았다고 다시 반죽을 했고, 시간이 있었다면 반죽이 남았다고 만두 속을 다시 할 뻔 했었니까요. 어머니는 아버지 얼굴만한 만두피에 만두를 만들어 빨리 끝내고 남은 속으로 튀김을 만들어 아이들과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두피에 속을 알차게 채웠듯이 올 한해 우리 아이들도 속이 알차게 채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명절에 집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Ann 이모가 명절도 반납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아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Ann이모,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이종원 원장(중국다일공동체)

#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년 르은이, 르은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씨엠립에 있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다일천사클리닉에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열한 살이 된 르은이는 심장이 안 좋아서 이 곳 저 곳 병원을 전전공공하며 다녔지만 심장병 수술을 받지 못해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엄마는 바탐방이라는 곳에서부터 배를 빌려 타고 무작정 씨엠립 다일천사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이라도 어디라도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가겠다고 꼭 살려달라는 르은이 엄마의 애끓는 눈빛과 표정이 바라보고 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곳까지 전해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라도 아이의 입술과 손톱이 모두 새파랗게 질려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진단은 기다려야 하지만 정맥혈이 폐로 가지 못하고 동맥과 섞여 대동맥으로 나가 표면상 파랗게 보이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 척추측만증으로 고통 받던 뽀안이가 한국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친구들과 뛰어다니며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을 키우고 있듯, 르은이도 건강을 되찾아 밝게 웃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찾아와 그저 살려달라고..살려달라고 외치는 르은이 엄마의 소원,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 르은이 예상 수술비용

심장병 수술비	검사 및 수술비	25,000,000
수속 및 관련비	항공 및 비자, 의약품 외	5,000,000
예상 총 수술 금액		30,000,000

### 다일복지재단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국민은행 467701-01-128318  
문의 : 사무국, 천은영 주임 02-2212-8004  
이메일 : cey38@dail.org  
홈페이지 : www.dail.org





당신은 오늘도  
빈 손으로  
오셨습니다.

CT를 무료로 찍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렸는데도  
아직 검사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으셨네요...

당신의 간에서 발견된 종괴가 암일 확률은  
비교적 낮다고 설명드렸는데도  
아직 병원으로 가시길 망설이고 계시네요...

당신의 지나친 음주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  
자신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혹시나 암일까봐, 방탕했던 자신이 미워질까봐...  
자꾸만 미루시네요.

그래도 저는 당신께서 이곳에 오실 때마다  
당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반갑지만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CT 찍어서 가져오셨나요?"



01 류정한 팬클럽 '쌀 후원'



02 정년은퇴 후 시작한 봉사의 삶

## 01 밥퍼니눔운동본부

### 경흥농장 굴 후원

매해 겨울이면 제주도 경흥농장에서 굴을 보내드립니다.

한주에 50박스씩, 12월에서 1월까지 한주도 거르시는 일 없이 하루라도 늦어질까 바쁜 손길 제촉하시는 그 마음이 굴 향기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덕분에 겨우내 밥퍼는 굴 향기로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

### 결혼 1주년기념 이중희, 김윤성 부부

최일도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한지 1년이 된 신혼부부가 밥퍼 봉사를 찾았습니다.

1년동안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모은 모금함을 가지고 찾아온 밥퍼에서 마음 다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1년후에도 꼭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던 두분의 미소가 참 아름답습니다.

이중희, 김윤성님 축복합니다.

### 생일기념 박신혜님

탤런트 박신혜님이 생일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올해도 밥퍼 봉사에 참여 하셨습니다. 매해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실하게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같이 봉사에 참여한 분들께, 또 어르신들께 오히려 기분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후원으로 봉사로 사랑을 전해주시신 박신혜님과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 뮤지컬 배우 류정한 팬클럽 '쌀 후원'

뮤지컬 배우 류정한님의 공연(몬테 크리스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팬클럽에서 쌀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팬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성공적인 공연이 되기를 밥퍼에서도 한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 02 다일천사병원 소식

### 연세속편한내과 업무협약

다일천사병원은 연세속편한내과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을 이용하는 환우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를 해드리기 위해 업무협약을 계획하였고, 연세속편한내과의 이승환 원장님은 기쁨으로 동참하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의로소 외계층을 향한 무료진료사역에 협력함으로 동참해 주신 이승환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어린이약품지원본부

어린이약품지원본부에서 약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의 필요에 따라서, 약품후원을 제안해주셨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약품지원본부에서 보내주시는 약품은 다일천사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약품지원본부의 의약품 나눔으로 인해서 많

은 이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 정년은퇴 후 시작한 봉사의 삶

직장을 은퇴하시고, 봉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년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생겨난 시간들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봉사 문의를 해오신 분들 이십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를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시며, 전직 의료인이나, 일반직장 혹은 공직에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봉사에 참여하시는 열정이 일반 젊은봉사자들 보다 더 넘치십니다. 힘이 닿는데까지, 꾸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이런 바람직한 일에 동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 후원 신청

다일천사병원의 이용자분들을 위해 사용할 심전도검사기계를 후원할 천사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고혈압, 심근경색)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심전도 기계입니다. 35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도움을 주실 천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일천사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우분들은



02 어린이약품지원본부



03 설곡산다일공동체 대관



04 DTS 훈련원 노숙체험

필수적으로 혈압 측정을 합니다. 노후된 혈압계를 교체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혈압계의 견적은 15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봉사신청**

다일천사병원과 다일작은천국의 자원봉사는 언제라도 환영합니다. 의료진들의 재능기부도 필요합니다. 봉사와 재능기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뜨거운 사랑을 기다립니다.

**03 설곡산다일공동체**

**고세인 주임 캄보디아 파송**

설곡산 다일공동체 고세인(경비)주임이 캄보디아로 발령받아 떠났습니다. 늘 기도로, 노동으로 설곡산을 아낌없이 섬긴 고세인 주임의 섬김에 감사하며 새로운 사명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로 떠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설곡산 대관**

장안제일교회, 역촌성결교회, 산성교회, 한울교회, 금성교회, 동송교회, 두레밀알교회, 세린교회에서 수련회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찾아주셔서,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에서 영육간의 쉼을 누리는 은혜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침묵묵상수련 3기**

김연수(등대)사모님의 인도로 13분의 벗님들과 침묵묵상수련 3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한 침묵과 묵상으로 인도해주심의 감사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쳤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영성수련**

2월 17일-19일 까지 직장인을 위한 영성수련 다시한번 일어서기 1기가 있었습니다. 참석하신 63명 모두가 주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영과 육이 다시한번 새롭게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을 담는 항아리' 사업**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의 일환으로 '행복을 담는 항아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교유의 된장, 고추장, 간장, 찜자찌류를 다일영성진지도우미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사랑과 기도로 담구어 다일영성수련회와 진지로, 여러 벗님들의 신선한 먹거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다일 패밀리들부터 항아리 하나씩 후원하여 시작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항아리(소) 10만 / 항아리(중) 15만 / 항아리(대)20만

'행복을 담는 항아리 사업' 후원연락처

(031) 585-2004, 010-6375-8004

이모세원장

**04 묵안리다일평화의마을**

**DTS 훈련원 노숙체험**

DTS 훈련원에서는 훈련의 중요한 과정인 노숙체험을 2월 9일-10일에 가졌습니다. 만도(저녁기도)후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미리 준비한 라면과 빵, 커피를 나눠드리고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였습니다. 10일에는 다일천사병원을 견학하고 밥퍼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직접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원탐방**

2월 10일 양평 수진원 농장에 탐방을 하였습니다. 수진원 농장은 30여년간 좋은 농산물을 재료를 사용하여 장인의 정성으로 정성껏 전통장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 다일의 또 다른 사역의 재료를 직접 보고 실질적으로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고은님 DTS훈련 수료**

21기 추고은(랄라라)님이 DTS 훈련을 마치고 사전 교육 완료 후 필리핀 사명실현지로 파송되었습니다.



05 예향어린이집 졸업식



06 캄보디아 러브깜디 도서 후원

### 열방을 향한 새벽의 부르짖음!

2월 달부터 DTS 훈련원에서는 조도(아침 기도)를 마치고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DTS 훈련생들이 매일 새벽 6시 반 눈물로 다일의 국내·외분원의 사역과 그 사역을 열심히 행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민족과 이 땅의 화해와 일치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중보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시는 모든 지체들이여 힘내세요!

### 05 예향어린이집 졸업식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잘 성장한 어린 친구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소망반 동생들이 불러주던 송별가에 콧등이 찡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향을 잊지 않고 씩씩하고 의젓하게 자라기로 약속했습니다.

### 해 외 분 원 소 식

### 06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캄보디아 다일비전센터 착공감사예배  
다일비전센터 착공감사예배에 최일도 이사장님, 김연수 상임이사님, 다일패밀리와

벗님, 블로그 기자단이 방문, 봉사하고 함께 비전센터 착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일비전트립팀, 박상원 홍보대사, 착공식을 찾은 분들께서 비전센터 착공식을 위해 후원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다일비전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훈련의 장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러브깜디 도서 후원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학생봉사자들의 모임 러브깜디에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동화책, 영어책, 그 밖의 다양한 여러 분야의 책들을 100권 가량 기증했습니다. 책에 러브깜디 도장을 찍어서 도서관에 비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러브깜디 학생들이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와서 봉사도 하고 책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열정과 정성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안양성결교회 성경학교

안양성결교회에서 방문하여 봉사해주시고 밥퍼에서 이틀간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성경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울동, 찬양도 하며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대전동안교회 봉사활동

대전동안교회에서 오셔서 밥퍼, 보건위생, 집짓기, 배만들기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목사님, 장로님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대전동안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 결연 아동 쌀 지급

캄보디아 결연 아동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결연 아동들에게 나누는 쌀 지급은 두 달에 한 번씩 이뤄집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은 다른 물품들보다도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쌀 나누는 날을 아이들 뿐 아니라 온 가족이 손꼽아 기다립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고, 돈 걱정 없이 학교에 마음껏 다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동결연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 07 필리핀다일공동체

드디어 '다일드림 유치원' 제1기생이 배출됩니다. 졸업식은 3월 2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입니다. 입학할 때 코 흘리던 아이들이 제법 의젓해져 졸업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후원해 주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07 다일드림유치원 아이들



08 카톨릭대 봉사팀



09 네팔을 찾은 봉사팀

다. 아울러 올해 6월에 입학할 제2기생 40 명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해 주십시오!

하루 급식비 60,000원

한 주일 급식비 300,000원

한 달 급식비 1,200,000원

## 08 베트남다일공동체

### 카톨릭대학교 학생 봉사활동

카톨릭대학교 학생 3명이 학교에서 동계 방학 중에 영성, 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 지역에 일주일간 봉사했습니다. 방학 중에 좋은 여행지로 편안한 시간을 즐길 수도 있지만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섬기며 밥 한 끼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어 참 감사했고, 더욱 봉사에 힘쓰는 삶을 살고 싶 다며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 포스코ICT 후원과 봉사

정기적으로 후원과 봉사를 해주시는 포스코ICT 직원 분들이 새로운 공장을 건설 하는 관계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건설하고 있는 공장 현장에서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 지역까지 몇 시간 거 리도 마다하지 않고서 봉사해 주시고 후 원도 해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포스코ICT

직원 같은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나고 든든 합니다.

### 후원방법.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미국달러(USD)용 -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직접 입금됨

예금주 :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24

베트남화폐(VND)용

-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직접 입금됨

예금주 :

DAIL SOCIAL WELFARE FOUNDATION  
우리은행(호치민지점) DDA912087837

대한민국(KRW)용

- 다일 복지재단을 거친 후 베트남 다일 공동체로 입금됨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국민은행 467701-01-142594

입금 후 연락을 주시면 천사회원, 나눔 회원 명단(개인, 기업, 후원 단체명)이 베트남 다일 공동체 밥퍼 센터에 새겨 집니다

## 09 네팔다일공동체

### 날마다 넘치는 은혜

많은 분들이 우리 네팔다일공동체를 찾아

오셔서 감동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며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에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롭게 건축된 다일비전센터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아이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기도에 동참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동대 봉사팀 방문과 책전달

한동대에서 4명의 학생들과 강병덕 교수님께서 네팔다일공동체를 방문하시고 봉사하여 아이들에게 80권의 책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은혜의 예배

성문용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 오셔서 봉사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토요일 예배 후에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봉사해 주신 분들

인디고학교팀, 한동대, 김신영, 김태희, 성윤미, 지설완, 강병덕 교수님, 나마스떼 네팔팀, 오영광 전도사님, 서울 영락교회 이미용 선교부, 미국지원봉사자 5명, 생명누리, 성문용 목사님



"나는, 자랑스러운  
밥퍼의 자원봉사자"



**대화중 다솜클럽**  
대화중학교에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봉사를 갑니다. 이번에는 청량리까지 봉사를 왔습니다.



**동송교회 봉사단**  
대학로에 위치한 동송교회 성도님들이 몇 년째 밥퍼 봉사를 오십니다. 가장 추운 날 봉사자가 부족할까봐 많은 봉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대문세무사 청렴동아리**  
국민들의 세금을 관리하는 동대문 세무사 직원들이 직접 손발 벗고 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직접 밥을 드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우리은행 논현동중앙지점**  
강남 중앙에 위치한 우리은행 논현동 중앙지점 지점장님과 직원들이 후원금을 가지고 밥퍼에 봉사하였습니다.



**배움터길**  
대안학교인 배움터길 학생들과 선생님이 3일 연속으로 밥퍼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께 드릴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도 깨끗이 했습니다.



**염광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염광고 학생들이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밥퍼 봉사를 왔습니다.



**sk텔링크-00700**  
국제전화로 유명한 SK텔링크가 2012년부터 한 달에 한번 봉사를 옵니다. 후원금도 전달해 주셨습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1월 27일~2월 29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 2월 신규후원

(고)김석남부인, (주)나눔스토어, (주)삼천리, (주)우리은행논현중앙지점, (주)이베이코리아, 각시탈사랑해^^오솔, 강경자, 강근영, 강동완, 강미정, 강병환, 강성수, 강예은, 강지민, 고금희, 고민주, 고태원, 곽인근, 구병수, 권에스디, 권오근, 권오복, 권정현, 김경민, 김경자, 김능자, 김다혜, 김동익, 김동철, 김미라, 김민주, 김봉석/헤림교회, 김수인, 김수환, 김순영(추장돈), 김순옥(롯데)대형, 김승현, 김영재(박연수), 김유민, 김재학, 김정현, 김진선, 김진중, 김창선, 김창숙, 김창은, 김치환수도권, 김하은, 김혜곤가족, 김호광, 김효정, 김희선, 노미화, 다일공동체후원금, 류동범, 류은서, 류현서, 류지웅, 맘앤팜, 문승식, 미천합니다, 민경현, 박미정, 박병국, 박선희(원유식), 박소희, 박영은, 박영자마리아, 박영하, 박옥경, 박용문, 박유진, 박정훈, 박중후, 박준규, 박지원, 박현, 박현우, 배정민, 배태현, 배화여대NOW, 백보람, 백홍기(김가현), 변종범, 삼진지역(주), 새로운교회, 성락선, 손주성, 손준우저금통, 송미현, 송선화, 신가경, 신세윤, 신수연(조금래), 신정순, 신지혜, 신혜경, 심성미, 안득현, 안미리, 안수천, 안사은, 양용국, 양익서, 양정심, 에스케이텔링크, 오세욱, 오영석, 오유석, 오윤상이정운김다혜, 우정민, 원유식, 월광교회, 유동열, 유애상, 유영근, 유은아, 유정희, 윤명희, 윤미연, 윤종순, 윤필희, 이경란, 이경익, 이관수, 이나현, 이문수저금통, 이미영, 이선미, 이성규, 이수아, 이이라, 이영길, 이영진, 이원복, 이원선, 이유빈, 이은숙, 이재선(김재선), 이정근, 이정미, 이정민, 이정원(배현태), 이정희, 이종미, 이지원, 이지호, 이창숙, 이태용, 이평석, 이평화, 이하은, 이혜윤, 이혜천, 이혜경, 이혜령, 이혜진, 이홍주, 이희경, 임민숙, 임아광, 임인선, 임인철(김다혜), 임현정, 임형준, 임혜진, 임호정, 입학교회청년회(최효원), 작은천국직원일동, 장재경, 장태욱, 전유규, 전일병, 전현우, 정성화, 정은호, 정정숙(최명현), 정혜리, 조경마-이복녀, 조민아, 조선재, 조수진, 조영미, 중동교회요셉주니어, 지현, 동준, 지혜인, 차은지, 채미선, 천경미, 천영아, 천지현, 최경림, 최경자, 최동철, 최미영, 최성해(로렐교회), 최우영, 최은희, 최정민, 최종원, 감사랑봉사팀, 감사온누리2010, 포이(에머)여성도회(박명순), 한국은행거리팀, 한미혜, 한상일, 한우리2/18, 허경은, 현금희, 홍문길, 홍민영, 홍석배, 홍혜진, 황규연, 황은진, 황희창, KT장휘일사랑해요

### باطن나눔운동 후원

신민숙, 옥합선교회, 맥스원이랑크, 박유진, 한애전자, 박종일, 일산은혜교회, 이종욱, 김원환, 김성철, 채봉창, 양정심, 김효욱, 윤현숙, 엠엔글로벌, 서울메트로, 무영, 김재학, 광현교회, 다일교회, 김치환수도권, 박영은, 한국은행신입사원, 정희주, 김보나, 류은서, 류현서, 미천합니다, 김혜곤가족, 오유석, 고민주, 고태원, 오세욱, 전일병, 이동원, 대한지적공사(동대문지사), (주)에이엠지코리아, 최경근, 권오복, 박신혜, 최다영, tsis, 국방홍보원, 이일옥, 포스메이트식대, 김유정, 김경민, 광현교회, 개인식대, 2월 소식지 정장-홍혜순->소망교회 봉사팀으로 정정할.

### 후원물품

1/16 강원호 쌀20kg 5포, 경흥농장 굴 10kg50박스, 영락고 양말100켤레  
1/17 사우트코리아 김치 4box, 가나다푸드마켓 동치미 1box, 삼림식품 빵 360봉지  
1/18 ns홍쇼핑 쌀 1004포, 코오롱신입사원 쌀20kg 4포  
1/25 종근당 소독제 12box  
1/26 이문수 쌀20kg 4, 박찬형 1kg, 동대문적십자 빵400개, 가나다푸드마켓 동치미 1box  
1/27 동대문푸드마켓 콩나물 15box,  
1/28 동대문 푸드마켓 빵 400개, 무영 쌀 20kg 2포  
1/30 경흥농장 굴 10kg 50box  
1/31 가나다푸드마켓 동치미 1box, 종근당 소독제  
2/3 동방유통 닭 30마리  
2/7 가나다푸드마켓 자색김치 1box

2/8 사조대림 미트볼 720봉지, 나눔스토어 쌀 20kg 40포  
2/11 신한은행 반찬통 1box  
2/14 가나다푸드마켓 동치미 1box, 류정한 쌀10kg 41포, kt&g복지재단 버섯 5box, sk m&c 쌀10kg 1포

### 다일천사병원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 고희압악, 진통소염제 등 물품후원  
이이라 - 50만원(세탁기)  
신한은행 - 온누리상품권 100장

### < 해외분원 >

#### 필리핀다일공동체

서울동노회, 이천우, PTS한인교회, 지일환, 임혜민, 김건희, 문정호, 한상소, 신동환, 이희철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들께 감사드립니다.

#### 베트남다일공동체

이종원(\$500), 심재호, 김문영(\$100의 기적), 대한어린이집(\$100의 기적)  
문지연 200.000동, 포스코ICT 쌀 20KG, 바나나, 포스코ICT 김광석 소장 외 7명, 최용하, 안 연숙, 최다현, 최다빈, 최다원, 카톨릭대학교 학생 김선아(경영), 김민주(경영), 윤혜원(회계)

#### 네팔다일공동체

Eman Singh Tamang, 나마스테 팀, 한동대 팀, Baral store 쌀 후원 30Kg, 팀세나

부반 쌀 150kg, 이만성 따방 600루피, 나마스테 팀 7000루피, 한동대 팀 \$597 + 1100루피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소망교회 봉사팀, 소망교회 예림회, 김수광, 홍정희, 한국 걸스카우트, 부산 YWCA, 연세대 교수, 이근복, 전병학, 오주희, 김영재, 서울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 수원 수성 라이온스 클럽, 안양성결교회, 공주대 간호학과 공주대 간호학과 안정선,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최은숙, 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김인숙, 공주대 응급구조학과 이경열, 공주대 간호학과 조순자, 서울서초동 산정현교회 전영란, (주)여행생각 장재도부장, 부산 동래 온천 감리교회, 대전송촌선비, 수원성화감리교회 오영자, 동탄감리교회 성인숙 집사, 카도, 태백연동교회 최준만목사, 대전버드내중학교2-3박태현, 클럽나우 김석훈 소장, 나팔꽃친목회, 미원중앙교회 장경자전사, 미원중앙교회, 청주서로교회,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양어진, 이현민, 구본순, 계원예술고등학교 교직원, 계원예술고등학교 미술과 오관진, 부산해강초등학교 이준서, 이준화, 러브팜디, 최창렬, 고려대 인적재난기술개발사업단 강나루, 고려대 인문학과 강다루, 김형길, 김수민, 김주희, 김승희, 김리희, 인천성도교회 고미자, KDB생명, 김승환, 김지혜, 충주애블라이온스, 경북안동교회 비전트립팀, GOD'S LOVING CHILDREN 김은희집사, 대전동안교회

#### 중국다일공동체

하이웨이 DTS 일동, 김민식, 훈춘시 부녀연합회, 훈춘시 목관회, 영광제빵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지로를 통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후원을 전화로 신청하시면 매일 발간되는 「다일공동체」에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지로용지는 각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를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지로후원 신청전화 02-2212-8004

\* 지로번호 ▶ 7657249(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3. 신용카드를 통한 후원은

[www.dail.org](http://www.dail.org)로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 〈행복나눔〉 참여

가게 혹은 기업에서 수익금의 1% 또는 일부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복지사업에 기부하는 참여

**후원 계좌** \_ 국민은행 010-01-0975-871  
제일은행 150-10-013794  
농협 031-01-433638  
기업은행 017-033086-01-038  
신한은행 140-00-5428327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우체국 010983-01-003220  
우리은행 014-039161-01-601

**후원 문의** \_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www.dail.org](http://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5-15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국내 후원 문의** \_  
TEL 770-813-0899

### 보험상품을 통한 참여

#### 사랑의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주시면 귀하의 보험료 일부가 다일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문의 : 02-2212-8004)

#### 사랑의 보험 1°C(일도씨) 더 따뜻한 세상 만들기

다일복지재단을 수탁자로 하는 생명보험입니다. 연령별로 약 1~2만원의 보험료로 1천만원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액 복지재단의 비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전창근 원장 M 1-773-621-3981  
E-mail [jcgstory@yahoo.com](mailto:jcgstory@yahoo.com)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lesd@dail.org](mailto:blesd@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mailto: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minjuna8@dail.org](mailto:minjuna8@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mailto: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mailto: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mailto: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은행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95-999-1004

E-mail [lplhome@dail.org](mailto: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histime@dail.org](mailto:histime@dail.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65

프놈펜밥퍼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Mobile 63 927 560 7346

E-mail [gracekeong@dail.org](mailto: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huban12000@yahoo.com](mailto:bhuban12000@yahoo.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최일도 목사와 김연수 사모 및 준비된 영성가들이 은총의 문을 여는 다양한 기도 수련과 내적 치유 등 교회사 전통 속에 내려온 기독교 영성 훈련을 안내합니다.

<p><b>4월</b></p>	<p>3월 30일(금) ~ 4월 01일(일) : <b>침묵, 묵상수련</b> (2박 3일)                  4월 06일(금) ~ 4월 08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b> (2박 3일)                  4월 13일(금) ~ 4월 15일(일) : <b>침묵, 묵상수련</b> (2박 3일)                  4월 20일(금) ~ 4월 22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I</b> (2박 3일)                  4월 27일(금) ~ 4월 29일(일) : <b>침묵, 묵상수련</b> (2박 3일)</p>
<p><b>5월</b></p>	<p>5월 04일(금) ~ 5월 06일(일) : <b>생명축제</b> (2박 3일)                  5월 11일(금) ~ 5월 13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b> (2박 3일)                  5월 18일(금) ~ 5월 20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I</b> (2박 3일)                  5월 25일(금) ~ 5월 27일(일) : <b>침묵, 묵상수련</b> (2박 3일)</p>
<p><b>6월</b></p>	<p>6월 01일(금) ~ 6월 03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b> (2박 3일)                  6월 08일(금) ~ 6월 10일(일) : <b>다시한번일어서기 II</b> (2박 3일)                  6월 22일(금) ~ 6월 24일(일) : <b>침묵, 묵상수련</b> (2박 3일)                  6월 25일(월) ~ 6월 29일(금) : I 단계 <b>아름다운세상찾기 136기</b> (4박 5일)</p>

\* 다시한번 일어서기는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을 위한 아름다운 세상찾기입니다. 아세찾기를 두 주간에 걸쳐 (I), (II)로 3개월 내에 나누어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인도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사회교육 강사

**저서**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도서출판 다일)  
 마음열기(중앙M&B)  
 더 늦기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동아일보사)  
 행복하소서(위즈덤하우스)  
**신간** 밥심(마음의숲) 등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youngsung H: 010)6375-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심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 밥! 이땅에 밥 굶는이 없을때까지

보상없이, 댓가없이, 아름다운 밥심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 밥!(아름다운 밥퍼)입니다.



뒤 왼쪽부터 이석연팀장(포코스), 정희돈전무(삼천리), 이재균대표(삼천리자산운용), 강병일대표(삼천리도시가스부문),  
강지원변호사(한국매니페스트), 최일도이사장(다일공동체), 김영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김점자(소망교회), 정구숙(소망교회), 박순분(소망교회), 김형길사무총장(다일공동체)

앞 왼쪽부터 신만중사장(삼천리), 김경이부회장(삼천리), 한준호회장(삼천리), 조용근회장(세무법인석성),  
이선희교장(전서일중학교), 이해훈의원(다일공동체협력대사)